



8월 30일



하나님께서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여라!”

그러나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우르릉, 쿵! 휘이잉, 철썩철썩! 하나님께서는 거센 폭풍을 불게 하셨어요. 선원들은 바다에 빠지게 될까 봐 두려웠어요.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이 재앙이 요나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나가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폭풍이 불게 된 거예요.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침병! “어푸, 어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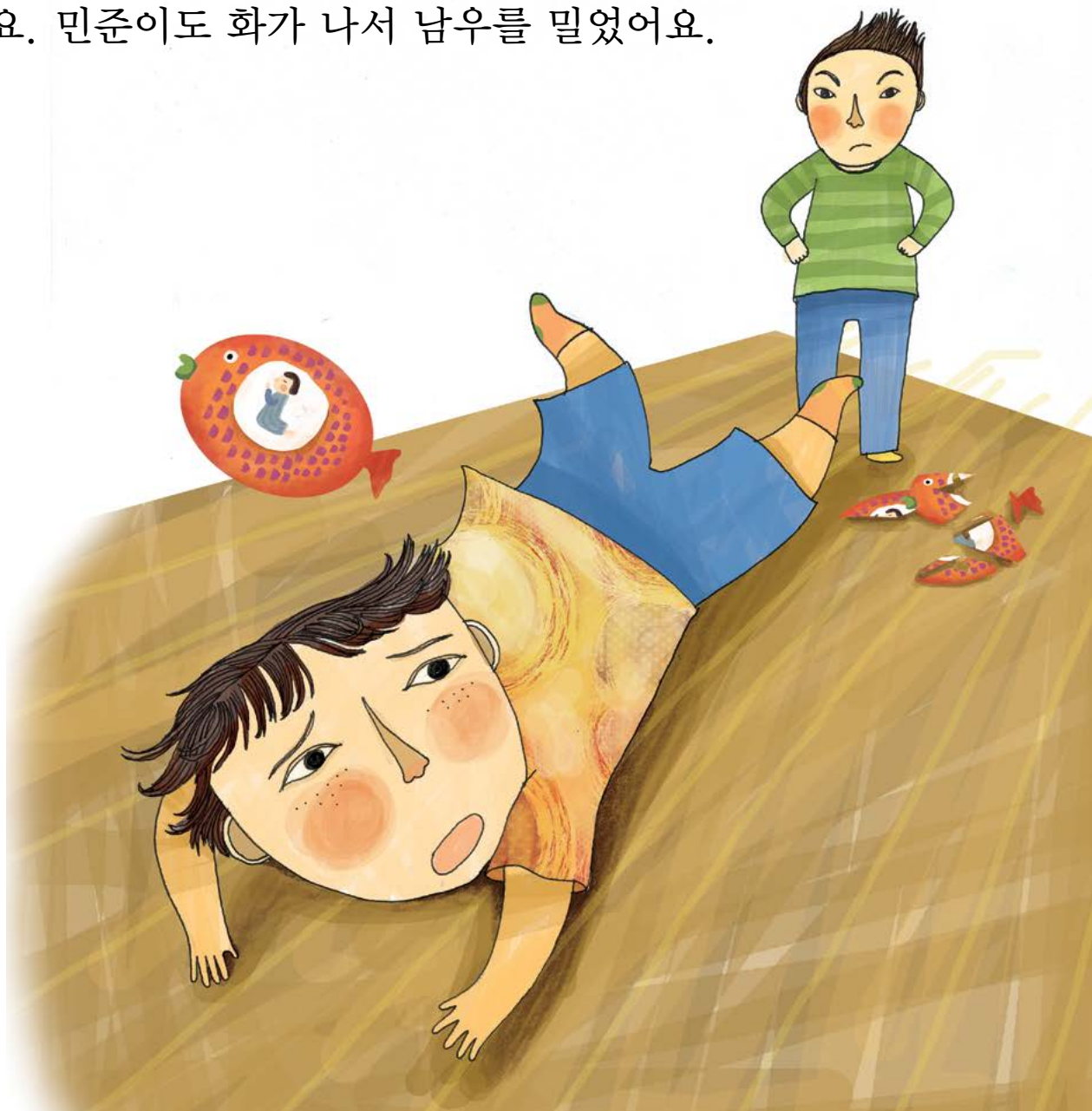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오.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생각하는 아이

주일날, 남우는 분반 선생님과 풍선으로 큰 물고기를 만들고, 종으로 만든 요나를 풍선 뱃속에 넣었어요. 분반 시간이 끝나고, 엄마를 기다리는데 뽕! 소리가 났어요. 모두 놀라서 쳐다봤더니, 같은 반 민준이가 남우의 풍선을 터뜨린 거예요. 민준이가 남우를 쳐다보며 “미안해” 라고 했지만, 남우는 너무 화가 나서 민준이를 밀었어요. 민준이도 화가 나서 남우를 밀었어요.



선생님은 남우와 민준이에게 서로 화해하라고 했지만,
남우는 민준이가 여전히 미웠어요. 엄마가 와서 대신
민준이에게 사과를 하시고, 밖에 나가서 조용히 남우의
얘기를 들어 주셨어요. 남우는 속상한 마음이 조금 없어지자,
엄마에게 말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민준이에게 사과하고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즐거운 활동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요. 미로를 탈출해 보세요.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시편 50장 15절

다시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선생님께

부모님께